

특정한 때의 인사말

V

22. 연말연시

23. 생일 축하

24. 축하, 위로

25. 문상

26. 건배할 때

22. 연말연시



연말연시

송년 인사는 표준화된 말이 없음이 특징이다.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의 뜻과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치하의 뜻을 포함하면 된다. 그 밖에 상대방에게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대해 기쁨과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좋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는 송년 인사의 좋은 예이다.

송년 인사말에서 고맙다는 표시로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감사합니다.’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는데 ‘고맙습니다.’가 더 좋은 말이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감사하다’라는 말만을 옳은 말로 알고 ‘고맙다’는 말을 오히려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쓰기에는 부적합한 말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감사하다’ 보다는 ‘고맙다’라는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이 좋다.

한편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나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와 같은 과거형 표현이 근래에 흔히 쓰이는데 고마움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과거형보다 현재형이 더 정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나 ‘한 해 동안 수고했네.’와 같은 말로 송년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수고하다’라는 말은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묵은세배’가 있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또는 특별히 나를 보살펴 준 어른을 그믐께 찾아뵙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은혜에 고마움을 표했던 것이다.

묵은세배는 그냥 절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구세(新舊歲)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인사말을 덧붙여 하기도 했다. 물론 묵은세배를 하고 새해에도 다시 세배를 간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과 같은 묵은세배를 그대로 고집하기는 어렵다. 오늘날에는 정초에 일이 있어 가 뵙지 못할 경우에 연말에 찾아뵙고 송년 인사와 신년 인사를 겸해서 세배를 할 수도 있다.

요즈음에는 연말에 직장 동료나 친구를 만나서 헤어질 때, 올해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면 신년 인사를 하는 일도 있다. 정초에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는 물론 정초에 다시

만날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미리 새해 인사를 한다. 이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다.

신년 인사의 표준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직장, 학교, 이웃 등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신년 인사의 정형으로 굳어졌다. 물론 대화 상대에 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집안에서 친척, 친지에 대한 신년 인사는 세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된다. 요사이 젊은 층에서는 세배를 할 때 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어른에게 으레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 말은 불필요한 말이고 좋지 않은 말이다. 이런 명령조의 말을 하는 것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절 받는 어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말없이 그냥 절을 하는 것이 공손하다. 다만 나이 차가 많지 않은 어린이 절 받기를 사양할 때 권하는 의미로 ‘절 받으세요.’나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다.

세배는 원칙적으로 절하는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절만 하면 그걸로 인사를 한 것이며 어른의 덕담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이다.

어린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덕담은 ‘소원 성취하게.’가 정형이라 할 만하다. 이 밖에 상대방의 처지에 맞는 덕담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장가 안 간 총각에게 장가가기를 빌어 주는 덕담으로 ‘자네 올해 장가들었다지.’ 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말했지만 오늘날에도 이를 표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자네 올해는 장가가야지.’ 정도로 덕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절을 한 뒤 어른의 덕담이 곧 이어 나오지 않을 때나 덕담이 있은 뒤에 어른께 말로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처지에 맞게, 이를테면 ‘올해는 두루두루 여행 많이 다니세요.’나 ‘올해는 테니스 많이 치세요.’와 같은 기원을 담은 인사말을 할 수 있다. 요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윗사람에게 건강을 비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 듣는 이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건강을 비는 말이 오히려 듣는 이에게 ‘내가 벌써 건강을 걱정해야 할 만큼 늙었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수무강하십시오.’나 ‘오래오래 사세요.’ 같은 인사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어른에게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말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표 V-1 연말연시 인사말

	인 사 말
연말연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원 성취하게.

23. 생일 축하



생일을 가리키는 말

특별한 생일(나이)의 이름

생일 축하 인사말의 표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생일을 가리키는 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일(生日)의 높임말이 생신(生辰)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나 요즈음 젊은 층에서는 점차 안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살려야 할 말이다. 순위 사람의 생일에 대해서는 생신이라고 해야 한다. 부모는 물론 연세가 든 형님에 대해서도 생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생일잔치’의 높임말은 ‘생신 잔치’이므로 어른의 ‘생일잔치’는 ‘생신 잔치’라고 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생일날’에 대해 그 높임말은 ‘생신날’이다.

예순 이후의 특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의 생신에 자녀들이 잔치를 여는 것이 우리의 오랜 풍습이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 세대에서는 특별한 생일, 또는 그 생일이 든 나이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이런 말들에 대한 설명이 예절서에 따라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혼란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육순(六旬)은 집에서 세는 나이로 예순 살이며 칠순(七旬), 팔순(八旬), 구순(九旬)은 마찬가지로 각각 일흔 살, 여든 살, 아흔 살이다. 태어난 해로부터 간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에서 집에서 세는 나이로 예순한 살이 환갑(還甲)이다. 이 환갑은 회갑(回甲), 화갑(華甲)이라고도 한다. 이 밖에 화갑(花甲), 주갑(周甲)도 가능한 말이지만 권장할 만한 말은 아니다. 환갑 다음 해인 예순두 살은 진갑(進甲)이다.

고희(古稀)는 칠순의 다른 이름으로서 세는 나이로 일흔 살을 가리키며 그 잔치는 고희연(古稀宴) 또는 희연(稀宴)이다. 그리고 세는 나이로 일흔일곱 살은 희수(喜壽), 여든여덟 살은 미수(米壽), 아흔아홉 살은 백수(百壽)이다. 그러나 예순여섯 살을 미수(美壽), 아흔 살을 졸수(卒壽)라고 하는 말은 널리 쓰이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생일잔치를 가리키는 말로는 수연(壽宴), 수연(壽筵), 수연(睟宴)이 현실 언어에서 쓰이고 있다. 원래 수연(壽宴), 수연(壽筵)은 엄밀하게 구별이 되는 말이다. 수연(壽宴)은

손님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잔치’를 뜻하는 말이다. 수연(壽筵)은 잔치를 베푼다는 뜻이 없이 그냥 생일의 자리를 뜻하지만 잔치를 베풀면서도 겸손의 뜻으로 쓸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수연(壽宴)과 수연(壽筵)의 엄밀한 용법의 차이를 가려서 쓰기가 쉽지 않으므로 생일잔치라는 의미로 두 가지를 두루 쓸 수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 생일잔치의 뜻으로 쓰는 수연(晬宴)은 원래 돌잔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수연(壽宴)이나 수연(壽筵)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표 V-2 특별한 생일(나이)의 이름

연 령	이 름
60세	육순(六旬)
61세	환갑(還甲), 회갑(回甲), 화갑(華甲)
62세	진갑(進甲)
70세	칠순(七旬), 고희(古稀)
77세	희수(喜壽)
80세	팔순(八旬)
88세	미수(米壽)
90세	구순(九旬)
99세	백수(白壽)

※ 연령은 만 나이가 아니고 세는 나이임.

생일 축하의 말

생일은 축하할 일이다. 우리말에서 축하할 때의 말은 어떤 경우이든 ‘축하합니다.’가

두루 쓰인다. 그러므로 생일 축하 인사말로 이 말이 특별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없다. 다만 부모의 수연에서 현수할 때나 남의 환갑이나 고희 등의 수연에 가서 어른에게 축하의 말을 할 때는 별도의 정형화된 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아기의 돌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생일의 하나이다. 이때 아기의 부모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하면 된다. 사람의 수명이 오늘날에 비해 짧았던 옛날에는 아기에게 ‘명 길어라.’와 같은 말을 흔히 해 주었지만 요즘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돌이 된 아기는 말을 못 알아듣지만, 굳이 말을 해 준다면 ‘건강하게 자라라.’가 좋다.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의 생일에는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축하하네.’, ‘생일 축하하네.’라고 하면 되고, 그들을 낳아 주신 부모에게도 ‘축하합니다.’하고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른의 회갑, 고희, 팔순 등의 잔치에 가서 어른과 대면해서는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와 같이 인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불어 ‘축하드립니다.’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축하드립니다.’는 ‘축하합니다.’보다 높임의 뜻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인 것이다. 상대를 높이는 뜻에서 ‘감사합니다.’를 감사드립니다.’로 ‘약속합니다.’를 ‘약속드립니다.’로 표현하는 것은 ‘축하합니다.’를 ‘축하드립니다.’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나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도 생신을 축하하는 말로 괜찮다. 이 밖에 ‘건강하십시오.’라고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건강하다’는 형용사인 데 형용사는 명령문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로 명령형 문장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 사십시오.’나 ‘만수무강하십시오.’와 같은 말도 아기의 돌 때 ‘명 길어라.’처럼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더욱이 ‘여생을 건강하게 사십시오.’나 ‘백 세까지 사십시오.’ 같은 말은 생일을 맞은 이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이다.

한편 생일을 맞은 이의 자녀에게는 축하에 두루 쓰이는 ‘축하하네.’,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인사할 수 있고, 잔치를 준비한 데 대해 치하하는 뜻에서 ‘수고했네.’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

V. 특정한 때의 인사말

환갑이나 칠순, 팔순, 구순 등의 특별한 생일잔치의 절차 가운데 자녀들이 생신을 맞는 부모에게 술잔을 올리는 현수가 있다. 이때 술잔을 올리면서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나 ‘만수무강하십시오.’의 두 가지 말 중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다. 자손들을 대표해서 부모에게 잔을 올리는 엄숙한 자리에서의 말이므로 이때에 한해 ‘만수무강하십시오.’와 같은 격식적인 말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표 V-3 생일 축하 인사말

상 황		인 사 말
돌 때	아기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아기에게	건강하게 자라라.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의 생일에	당사자에게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환갑, 고희 등의 생일에	당사자에게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축하합니다.
	당사자의 자녀에게	축하하네. 수고했네.
환갑, 고희 등의 잔치에서 현수할 때의 말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24. 축하, 위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인사말을 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결혼

축하의 인사말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는 결혼식장이다. 축하 인사말은 조금 실수를 해도 인사를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때도 짧고 정중한 인사말을 잘 골라 써야 한다. 본인에게는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혼인을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결혼을 경축합니다.’, ‘혼인을 경축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부모에게는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대에 따라 ‘축하한다.’, ‘축하해.’ 와 같이 경어법의 어미를 달리할 수 있다.

표 V-4 결혼 축하 인사말

대 상	인 사 말
본인에게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혼인을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결혼을 경축합니다. 혼인을 경축합니다.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출산

출산한 산모나 그의 남편, 이들의 부모에게는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또는 ‘순산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순산하셨다니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좋다. 아들을 낳았을 때나 딸을 낳았을 때 인사말을 달리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은 어느 경우에도 고귀한 일이어서 똑같이 축하해야 할 일이다. 물론 이 말들 뒤에 다른 말을 붙여 인사할 수도 있다.

표 V-5 출산 축하 인사말

대 상	인 사 말
산모, 남편, 이들의 부모에게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순산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순산하셨다니 축하합니다.

문병

아플 때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려 깊은 인사말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병이 가벼운 병인가, 중한 병인가, 회복할 수 있는 병인가 아닌가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문병 인사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는 털고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므로 끝까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한다.

V. 특정한 때의 인사말

문병을 할 때는 환자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인사말과 문병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인사말이 다르고, 환자에게 하는 말과 보호자에게 하는 인사말이 다르다.

처음 환자를 대할 때는 ‘좀 어떠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나올 때는 ‘조리 잘 하십시오.’, ‘조섭 잘 하십시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보호자를 처음 대면해서 하는 인사말로는 ‘좀 어떠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쓰고, 나올 때는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표 V-6 문병할 때 하는 말

대 상		인 사 말
환자에게	들어가서	좀 어떠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불의의 사고일 때] 불행 중 다행입니다.
	나올 때	조리 잘 하십시오. 조섭 잘 하십시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에게	들어가서	좀 어떠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올 때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앞서 다루었던 결혼, 출산, 문병 외에도 신축, 개업, 이전, 합격, 입학, 졸업, 취직, 승진, 영전, 정년 퇴임, 불합격, 좌천, 재해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축하하거나 위로할 일을 많이 겪는다.

이때 축하해야 할 일에는 어느 경우에도 ‘축하합니다.’, ‘○○을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을 경축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위로해야 할 일일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내어 그 점을 드러내 인사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정년 퇴임과 같은 경우에는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위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공적을 기리고 과오 없이 법정 기간을 마친 것을 축하해야 하는지, 그 기본 정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올바르게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정년 퇴임이 ‘축하할 일’이라는 의견과 ‘위로할 일’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므로 갑자기 맞이하는 일이 아니고, 과오 없이 법정 기간을 근무하고 정년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일을 올곧고 성실하게 한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축하의 인사를 해야 한다.

정년 퇴임을 축하할 때는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외에도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정년이시라니 아쉽습니다.’ 등으로 인사할 수 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정년이시라니 아쉽습니다.’와 같은 말은 그동안의 공적을 기리는 마음, 건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축하, 지난 삶이 알찼던 것처럼 정년 뒤의 삶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물론 정년 퇴임하시는 분의 건강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것을 골라 쓸 수 있다.

V. 특정한 때의 인사말

표 V-7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말

<p>축하해야 할 일</p> <p>(신축, 개업, 이전, 합격, 입학, 졸업, 취직, 승진, 영전, 정년 퇴임)</p>	<p>축하합니다.</p> <p>○○을 축하합니다.</p> <p>경축합니다.</p> <p>○○을 경축합니다.</p>
<p>위로해야 할 일</p>	<p>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내어 그 점을 드러내 인사하는 정신이 중요하다.</p>

25. 문상



‘문상(問喪)’과 관련된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상가에 가서 죽은 이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요즈음은 보통 ‘문상(問喪)’이라 하고 ‘조상(弔喪)’, ‘조문(弔問)’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들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지만 원래 이들은 서로 다르게 쓰이던 말이었다.

‘조상(弔喪)’은 ‘죽은 이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고 ‘조문(弔問)’은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을 일컬었다. 그리고 이 ‘조상’이나 ‘조문’은 부모상 또는 승중상(承重喪)(손자가 상주가 된 경우), 남편상에만 쓸 수 있는 말이었다. 부인상, 형제상, 자녀상 그리고 승중상이 아닌 조부모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조위(弔慰)’ 또는 ‘위문(慰問)’으로 달리 지칭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특별히 구분하여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문상(問喪)’이라는 말로 대신해 쓸 수 있다.

문상 인사말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인다. 어느 경우에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사만 하는 것이 기본예절이다. 만약 말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쓸 수 있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문상을 가서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예의에 맞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좋다.

전통적으로 부친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대고(大故) 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 모친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상사 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 라고 부모를 구분해서 말했었다고도 한다. 또 과거에는 남편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천붕지통(天崩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고 부인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고분지통(叩盆之痛, 鼓盆之痛)이……’ 한다든가, 형제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할반지통(割半之痛)이……’ 하기도 하였다. 자녀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참척(慘戚)을 당하시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기도 했으나 굳이 복잡하게 여러 경우로 나누어 따로따로 인사말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모상의 경우에 한해서 ‘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 를 쓸 수는 있되, 이 말은 상주가 나이가 지긋하고 문상객도 나이가 지긋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결국 어떤 경우의 문상에서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굳이 말을 한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뉘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말을 할 경우라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뒤를 흐리는 것이 예의이다. 문상하는 사람도 슬퍼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문상 인사말은 상황이나 문상객과 상주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문상 인사말에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까지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상을 가서 ‘호상(好喪)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혹 문상객끼리라면 몰라도, 상주에게는 써서는 안 될 말이다.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천수(天壽)를 다했더라도 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상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문상을 하는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전통 예법이기 때문이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울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망극하옵니다.’ 라든지 ‘시탕(侍湯) 한 번 제대로 못하여 드린 것이 그저 죄스럽습니다.’ 하는 등 요즈음 잘 쓰지도 않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상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V. 특정한 때의 인사말

표 V-8 문상 인사말

상 황	문상객의 말	상주의 말
일반적으로 두루 쓸 수 있는 말	<p>[말없이 인사만 한다.]</p> <p>삼가 조의를 표합니다.</p> <p>얼마나 슬프십니까?</p> <p>뵈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p> <p>고인의 명복을 빕니다.</p>	<p>고맙습니다.</p> <p>드릴 말씀이 없습니다.</p>
부모상의 경우	<p>[말없이 인사만 한다.]</p> <p>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p>	

26. 건배할 때



원래 우리 민족의 술 마시는 문화에는 여럿이 동시에 잔을 쳐들고 건배를 하는 관습이 없었다. 그런데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술잔을 동시에 들거나 부딪치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고, 건배할 때의 말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하여!’, ‘건배!’, ‘지화자!’ 등 많은 말들이 쓰여 왔고 새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말도 우리 사회의 공동의 약속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로워야 할 사적인 술자리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말을 건배의 말로 쓸 수 있고 공적인 자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건배 용어가 필요하기도 하다.

오늘날 건배할 때의 말로 널리 쓰이고 있는 ‘위하여!’는 건배 용어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말이다. 그런데 ‘위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를/을 위하여’로만 쓰이는 타동사로서 목적어 없이 그냥 ‘위하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등과 같이 무엇을 위하는지를 밝히는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에 화답해서 ‘위하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적, 사적인 술자리에서도 쓸 수 있는 건배의 말로 ‘○○를/을 위하여!’와 함께 ‘지화자-좋다’ 또는 ‘건배-건배’, ‘축배-축배’ 네 가지를 모두 쓸 수 있다.

‘지화자-좋다’는 1990년 무렵부터 공적, 사적인 자리에서 건배 용어로 쓰고 있다. 낯설기 때문에 건배 용어로 채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화자!’의 선창에 화답하는 ‘좋다!’가 우리의 옛 가요에 나오는 ‘지화자 좋다!’를 그대로 살린다는 점에서 써 봄 직하다.

‘건배!’는 ‘○○를/을 위하여!’나 ‘위하여!’ 못지 않게 현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므로 꺼릴 이유가 없다. ‘건배’가 일본말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축배’와 ‘배(杯)’를 가진 한자어로서 공통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다만 ‘축배!’는 위로의 모임 같은 데서는 쓸 수 없고 오직 축하의 모임에서만 쓸 수 있으며 중국말, 일본말 그대로운 ‘간빠이!’, ‘간빠이!’나 ‘치어스!’ 따위는 외국어이므로 쓰지 않아야 할 말이다.

‘드십시다!’, ‘듭시다!’는 술잔을 드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건배 용어는 아니며 식사할 때 식사를 권유하는 말과 같은 어형이기 때문에 표준화한 건배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표 V-9 건배할 때 하는 말

선 창	화 답
○○을 위하여!	위하여!
지화자!	좋다!
건배!	건배!
축배!	축배!

